

- 주요 뉴스: 다보스 포럼 설문조사, 금년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 예상
 -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통해 자금 공급 확대. 대출금리는 동결
 - 일본은행, 1월 국채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 금리상승 억제 등이 주요 배경
 - 국제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 유럽은 중국 경제 회복 기대 등이 반영
 - 유럽 주가 상승[+0.5%], 달러화 강세[+0.2%], 독일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등으로 9개월래 최고치
 - 환율: 달러화지수는 7개월래 최저 기록 이후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소폭 반등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1%, 0.6% 하락
 - 금리: 미국 채권 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
독일은 경기회복 가능성 등이 반영되며 1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240.5원, +5.2원) 0.5% 상승, 한국 CDS 보합

		1/16일	1/13일	전일대비			1/16일	1/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3,999.1	-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3.50%	-
	유럽	454.63	452.54	0.46%		독일	2.18%	2.17%	1bp
	중국	3,227.6	3,195.3	1.01%		영국	3.38%	3.37%	2bp
	일본	25,822	26,120	-1.14%	CDS 5y	한국	43bp	43bp	0bp
	한국	2,399.9	2,386.1	0.58%		중국	53bp	53bp	0bp
환율	달러지수	102.37	102.20	0.16%	위험 지표	EMBI+	-	377	-
	유로화	1.0822	1.0830	-0.07%		VIX	휴장	18.35	-
	엔화	128.58	127.87	-0.55%		WTI유	휴장	79.86	-
	위안화	6.7382	6.7010	-0.55%	원자재	구리	413.9	421.6	-1.83%
	원화	1,235.3	1,241.3	0.49%		금	1,916.0	1,920.2	-0.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다보스 포럼 설문조사, 금년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 예상

- 주요 이코노미스트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2/3는 금년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유럽과 미국을 지목. 중국은 저성장과 안정적 성장에 대한 전망이 비슷한 수준
- 미국과 유럽에서의 통화긴축이 금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50%를 상회. 고물가 위험의 경우 유럽에서(57%)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4%)을 선택한 비중은 매우 낮은 편
- 세계경제에 여전히 많은 저해요인들이 존재하며, 원활한 글로벌 경제흐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DP World의 Yuvraj Narayan). 다만 일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 제기(PWC의 Bob Moritz). 장기간 경기침체 우려가 거론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관련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
- IMF, ILO(국제노동기구) 역시 글로벌 경제 관련 부정적 시각 제시. IMF는 지리경제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GDP의 7%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 ILO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및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금년 전세계 고용 증가율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2%→1%)에 그칠 것으로 예측
- 한편 에델만 신뢰도지수(Edelman Trust Barometer, 5년 후 가계 경제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미국(36%), 독일(15%), 영국(23%), 일본(9%)등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매우 낮은 수준 기록. 글로벌 지수(40%)도 50%를 하회. 위험요인으로는 실직, 인플레이션,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등이 거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미국 달러화지수 전망 하향. 여타 주요국의 경기불안 우려가 완화

- 기존의 연말 달러화지수 전망을 낮춰서(104→98) 제시하고 유럽 등 다른 국가의 경기하강 관련 불안 감소를 고려했다고 설명.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경제전망 역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
- 통화별로는 유로화(1.08→1.15), 위안화(6.73→6.65) 등의 환율 전망이 개선. 반면 파운드화(영국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반영)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예상

■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렌 총재는 ECB가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더 강력한 긴축 대응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금리를 제약적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
-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년 ECB의 물가안정 의지 등을 반영하여 예금금리(현재 2.00%)가 7월 정점(3.25%)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통해 자금 공급 확대. 대출금리는 동결

- MLF를 통해 7790억위안 공급. 만기 상환금액(7000억위안) 고려 시 790억위안의 자금이 신규로 공급되었으며, 대출금리는 이전과 동일한 2.75%를 적용. OCBC Bank와 Barclays는 신용 확대를 위해 인민은행이 완화정책 지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 '22년 12월 신규주택 가격, 전월비 하락. 추가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예상

- 작년 12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비 0.2% 내려 5개월 연속 하락.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1.5% 낮은 수준. 시장에서는 당국이 유동성 공급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 1월 국채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 금리상승 억제 등이 주요 배경

-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1월에 17조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여 이전 최대치('22년 6월 16.2조엔)를 상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1/16일(월)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본은행의 목표(+/- 0.5%)를 넘어서는 0.51%로 마감

■ 일본 '22년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증가

- 작년 1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0.2% 올라 전월(9.7%) 및 예상치(9.5%) 상회. 일본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최종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 이번 결과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압력을 높이는 요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 독일 '22년 12월 소비자물가, 중국 '22년 4/4분기 성장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으로 대두 - WSJ

(IMF Warns Unraveling Economic Ties Could Shrink Global Output)

- 각국 정부들은 수출 제한, 이민 억제, 자본유출입 통제 등 여러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통합에 역행하고 있으며, IMF는 이러한 '지리경제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장기적으로 전세계 GDP를 7%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경고
- 지리경제학적 분절화를 통해 해당 국가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략적 이득을 누릴 수 있겠으나, 중국에는 수입물가 상승, 시장 분절, 기술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을 통해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는 금융부문에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간 금융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외부채 축소와 같은 값비싼 자가보험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

■ 유로존 채권, 미국 채권보다 저조한 성과 예상 - 블룸버그

(Treasuries Will Leave Europe's Bonds in the Dust, Investors Say)

- 블룸버그 설문에 따르면,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 회피 및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유로존 상품 수요 증가가 예상. 그러나 응답자의 75%가 유로존 채권보다 미국 채권을 선호
- 응답자의 1/3 이상은 ECB 최종 정책금리를 3.5% 이상, 15%는 4.0% 이상으로 내다보며 3/4분기 이후 긴축 정점 도달을 전망. 반면, 미국은 금리인상 폭 축소 기대가 확산
- ECB가 주변국-중심국 금리 스프레드를 좁히고 채권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TPI(파급경로보호장치)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72%로 유로존 채권시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

■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자국 경제에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 - WSJ

(Russia's Energy Clout Is Waning, Weakening Its Global Influence)

-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유럽의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 충분한 천연가스 재고 등으로 무력해진 상황. 러시아 우랄유 가격은 과거 브렌트유와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절반 수준으로 하락. 또한 새로운 판매망을 위한 파이프라인 신축 및 외국 기술 도입 중단 등으로 화석연료 생산능력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
- 에너지 생산능력 감소는 OPEC+ 내 영향력 및 시장점유율 축소로 연결. 또한 화석연료 수출이 '21년 예산의 45% 규모여서 러시아 경제는 상당한 충격에 직면할 소지

■ **기업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비용절감 강화, 성장 잠재력 훼손할 소지 - Financial Times**
(CEOs beware: cost-cutting isn't the same as growth)

- 미국 빅테크 등 다수의 기업은 경기침체 우려 심화에 대량해고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증대. 그러나 과거 경기침체 속에서도 번창했던 기업들은 비용절감 뿐 아니라 부채축소 및 투자확대에 나섰음을 상기할 필요. '08년 Qualcomm 등이 금융위기 전 R&D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여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은 좋은 예
- 또한 '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규모 감원을 단행. 그러나 독일 기업들은 일시 휴직(Furlough) 등을 통해 숙련된 직원을 보유. 이에 '10년 중국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독일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
- 기업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나 수요우위의 노동시장 속 노동력을 단순히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

■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신중할 필요 - Financial Times**
(Why central banks should not push ahead with CBD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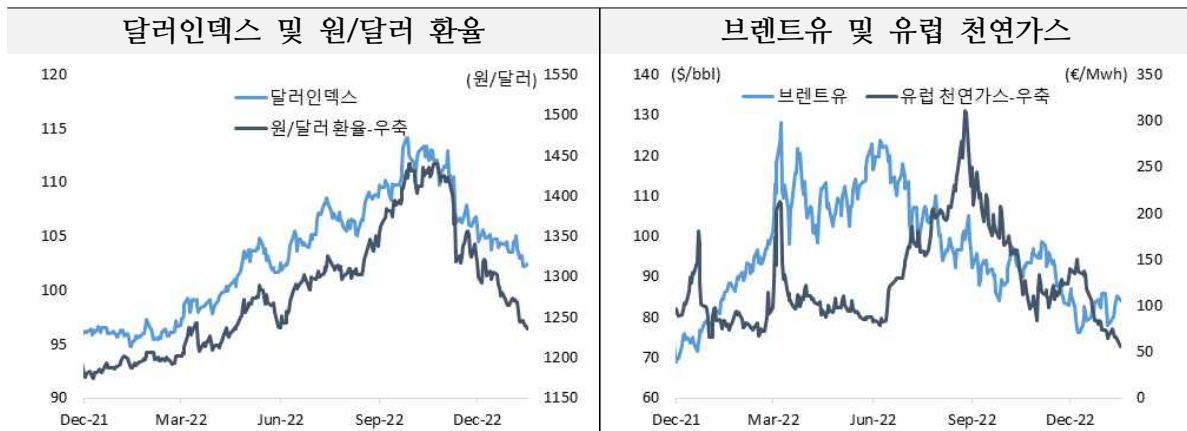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공급망 탈중국화, 여타국은 투자 확대로 탈탄소화 비용 증가 예상 - WSJ**
(OPEC Cartel Has Nothing on China's Clean-Energy Monopoly)

■ **금년 주요 원자재 가격, 낮은 재고 및 공급 부족 등으로 상승 전망 - 블룸버그**
(Goldman Sees 'Bullish Concoction' for Global Commoditi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